

전남 친환경 농산물, 경기지역 학교급식 공급 본격화

농협전남본부, 신안산 바나나 신규 포함
잔류농약 검사 기반 품질관리 체계 강화
농가 판로 확대·학생 건강 먹거리 기대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광일)가 경기도 학교급식에 공급할 친환경 농산물 출하를 시작하며 안정적인 유통체계 구축에 나섰다.

전남지역본부는 7일 "농협 호남권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에서 경기도 학교급식 공급용 친환경 농산물 출하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남농협이 경기도 학교급식 판외 공급업체로 선정된 이후, 제철 농산물의 본격적인 출하 시기에 맞춰 마련됐다.

현장에는 이광일 농협전남지역본부장을 비롯해 정희영 삼포농협 조합장, 신광섭 남평농협 조합장 및 친환경농업인 관계자들이 참석해 농심천심의 마음으로 정성껏 키운 전남 친환경농산물의 안전 운송을 기원했다.

특히, 이번 공급에서 눈길을 끄는 품목은 올레



농협전남지역본부가 7일 농협 호남권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에서 이광일 농협전남지역본부장을 비롯해 정희영 삼포농협 조합장, 신광섭 남평농협 조합장 및 친환경농업인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학교급식 공급용 친환경 농산물 출하 행사를 진행했다. <농협전남지역본부 제공>

신규로 포함된 전남산 친환경 바나나다. 신안에서 생산된 바나나는 수입산과는 달리 장거리 운송을 위한 화학 처리를 하지 않아 안전성이 매우

뛰어나며 충분한 후숙을 통해 깊은 풍미를 자랑한다. 또한 친환경 바나나와 더불어 5월 수확기를

맞아 햇양파·햇감자도 본격적인 공급에 들어갔다. 전남농협은 호남권친환경센터의 엄격한 잔류

농약 검사와 품질관리 체계를 거쳐 전남의 깨끗한 흙과 물이 키워낸 고품질 제철 친환경 농산물을 경기도 학교급식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공급의 전초기지인 농협호남권친환경센터는 호남 유일의 친환경농산물 전용 물류 거점으로써 2017년에 개장해 현재 수익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판로개척을 위해 운영중에 있으며 연간 100여톤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콜드체인 시스템(입고에서 출고까지 물품의 저온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철저한 안전성 검사를 통한 '학교급식 맞춤형 안전농산물'을 원스톱으로 공급하는 친환경센터는 농가 생산비용을 낮추고 공급효율은 극대화하고 있다.

이광일 본부장은 출하현장에서 "전남 농업인의 진심으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이 경기지역 학생들의 건강한 식탁으로 전달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바나나와 같은 신규 고부가가치 품목을 발굴하고 우수한 제철 농산물의 판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농업인의 실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북광주농협 '어린이 딸기 수확 체험' 성료

120여명 참여...농업 가치 전파

북광주농협은 7일 "광주 북구 소재 지산딸기 작목회 농가에서 지역 어린이들을 초청해 '농협과 함께하는 건국동 어린이 딸기 체험'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행사는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하고,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에게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과 농업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북광주농협의 정기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이날 체험에는 이철호 농협광주본부장, 구상봉 북광주농협 조합장과 농협 임직원들을 비롯해 건국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속 어린이 등 120여명이 참여했다. 아이들은 지산딸기작목회 소속 농업인의 하우스에서 빨갛게 익은 딸기를 직접 수확하고 맛보며, 도심 속에서 접하기 힘든 농촌의 활기를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구상봉 조합장은 "우리 지역의 미래인 아이들이 흙의 소중함과 수확의 기쁨을 직접 경험하는 것은 무엇보다 값진 교육"이라며 "오늘의 체험이 아이들에게 우리 농산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농협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안태호 기자



"주가 1만원 오르면 130원 소비...주요국보다 작아"

무주택 가구 투자이익 70% 부동산산행 추정

우리나라는 주식 투자 수익이 우선 부동산으로 향하기 때문에 주식 자산효과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 거시분석팀 김민수 차장, 추성운 조사역, 광범준 팀장은 7일 '우리나라의 주식 자산효과에 대한 평가'(BOK 이슈노트) 보고서에서 주가 상승이 소비 확대에 이어지는 주식 자산효과를 분석했다.

연구진이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패널을 이용해 우리나라 주식 자산효과를 추정한 결과,

주가 1만원 오를 때 자본이득의 1.3%인 130원 가량이 소비재원으로 활용됐다.

유럽, 미국 등 다른 주요국에서 자본이득의 3~4%가 소비 증가로 연결되는 데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연구진은 그 배경으로 '부동산 쏠림 현상'을 들었다. 주식투자 이익이 우선 부동산 투자로 이어지면서 소비 확대 효과를 제한했다는 것이다.

특히 무주택 가구는 주식 자본이득의 70%가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최근 서울 주택매매 자금출처조사에서도 주식매각대금 비중이 크게 늘었다. /연합뉴스

삼전·닉스 ETF 출범 눈앞... "5조3천억 유입 전망"

"상장 직후 단기쏠림 유의해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이달 하순 출격을 앞둔 가운데 많게는 5조3천억원에 이르는 자금이 관련 상품으로 한꺼번에 유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유재홍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7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국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 사례 적용 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유입은 소극적 유입 기준 1조7천억원, 적극적 유입 기준 5조3천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보통주, 기존 반도체 ETF, 홍콩 ETP 등 이전 수요가 총액의 85~88%를 차지하며, 신규 수요는 12~15%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미국 개인 투자자의 한계로 주식 직접 매매(IBKR) 개시는 변수 요인이며, 단일 종목 교육 이수가 별도로 필요한 점도 일정 부분 허들로 작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수급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보통주 매도 요인(소극적 -1조1천억원, 적극적 -3조4천억원)과 신규 ETF의 현물 매수(소극적 +1조7천억원, 적극적 +5조3천억원)가 맞물리면서 순영향은 우호적(소극적 +6천억원, 적극적 +1조8천억원)일 것"이라고 내

다봤다.

또, 외국인 등 기타 주체의 활동 및 시가총액 규모를 감안하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기존 레버리지 ETF에서의 적극적 유출을 감안하더라도 신규 자금 유입이 대부분 반영되며 프로그램 매수 및 풀림 유발 가능성이 크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유 연구원은 "상장 직후 단기 쏠림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ETF 신규 상장에 따른 수급 영향이 상장 초기 단계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 충격은 불가피하다"면서 "상장 초기 자금이 첫 5거래일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면 상장 이후 5거래일 동안 단기 변동성 급증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1일 단일종목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ETF 도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투자업계에선 삼성·미래에셋·한국투자·KB 등 대형 운용사를 중심으로 10여개 ETF가 출격을 앞두고 있으며, 금융투자협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거래 전 이수해야 하는 사전교육 온라인 과정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연합뉴스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원지국 955-0451
- 광산지국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할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